

장편소설창작에서 박력있는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필요성과 방도

최 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야기줄거리는 장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펼쳐지면서 극적긴장감을 주어야 하며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안겨주어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234페이지)

장편소설을 창작하는데서 이야기줄거리를 박력있게 조직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건이 발생발전하고 해결되는 과정은 이야기줄거리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줄거리는 단순한 사건의 연결과정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생활의 필연적인 발전과정이다.

박력있는 이야기줄거리는 인물의 성격과 생활의 발전과정이 새로운 극적긴장감과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게 조직된 이야기줄거리이다. 다시말하여 독자들에게 사건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강렬한 매혹과 감동을 주며 그들의 성격발전과 사건발전과정에 대한 극적기대를 가지게 하는 견인력있는 이야기줄거리이다.

창작실천에서 이야기줄거리의 박력을 조성하는 문제는 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된다.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박력있게 조성하여야 하는것은 우선 방대한 내용의 생활을 담은 장편소설의 용적상특성과 관련된다.

장편소설은 긴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견인력이 없으면 읽히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성격을 발견하고 소재가 좋다고 하여도 창작실천에서는 방대한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배치하고 다루는 과정에 자연히 이야기가 지루해지고 늘어지기가 쉽다.

장편소설은 다른 소설형태들과는 달리 거대한 생활반영의 폭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수많은 사건들의 흐름을 담게 되며 다양한 성격들의 발전과정들을 보여주게 된다.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가 방대한 사건들과 성격들의 복잡성과 다양성때문에 산만해지고 늘어진다면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충분히 실현할수 없게 되며 독자들의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장편소설창작에 들어가면서 각이한 인물들의 생활과 호상관계, 이러저러한 사건들과 인물들의 운명 등을 그려보게 된다. 그러므로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엮을 때 주어진 인물들이 사건적으로, 생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자기가 구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들이게 된다.

이처럼 사건들의 연결과정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엮다보면 이야기에 박력이 없어지면서 작가자신이 손뎁이 풀리어 더 쓸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은 이야기가 새로운 극적긴장감을 안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목적지향성있게 흘러가지 못하고 산만하고 진부하게 흘러가기때문이며 나아가서 작가자신이 생활과 성격의 논리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억지로 틀어맞추려고 하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작가가 이미 구상한 이야기줄거리에 따라 사건전달식으로 이야기를 그대로 밀고나간다면 그러한 작품은 독자들에게 읽히우지 않는다. 이것은 장편소설창작에서 이야기줄거리에 박력을 조성하여 장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극적긴장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안겨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박력있게 조성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인물들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흐름의 정서적굴곡을 풍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장편소설은 풍만하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인물들의 성격의 전모를 보여줄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성격을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립체적으로 풍만하게 형상하는 문제는 이야기줄거리의 박력과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이야기줄거리에 박력을 조성하면 사건의 흐름이 성격이 발현되고 발전해나가는 계기의 련속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풍만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고정되고 경계가 뚜렷하지 못한 생활의 흐름이 아니라 독자의 예상을 뒤집는 박력있는 생활의 흐름속에서 인물들은 자기들의 사상적지향을 드러내고 개성적특성들로 독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아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정황과 성격, 뒤가 뻥드름한 이야기줄거리는 사람들의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독자들에게 새롭게 안겨오는것은 등장인물들이 사는 환경이나 표면적인 생활이 아니라 다름아닌 그들의 마음의 변화발전과정, 세계관의 변화발전과정이다.

이야기줄거리를 박력있게 조직하면 작품은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는 성격의 전환과 그를 야기시키는 사건의 전환을 련이어 펼쳐보이게 되고 그로 하여 독자들에게 정서적인 장감을 안겨줌으로써 속도감있게 읽히우게 된다.

장편소설에서 박력있는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는 무엇보다먼저 작품창작의 전과정에서 성격발전의 단계들을 명확히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의 형상의 묘를 두드러지게 설정하는것이다.

방대한 사건의 흐름속에서 성격발전의 단계들을 명백히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의 형상의 묘를 독특하면서도 특색있게 설정할 때 이야기의 박력이 조성되면서 사건발전의 전 과정이 극적기대의 조성과정으로 일관될수 있다. 성격발전의 단계들이 뚜렷하지 못하면 장편소설의 이야기는 어차피 지루한 사건의 라렬과정으로 된다. 이야기의 박력있는 전진 과정은 성격발전의 단계들이 뚜렷해지면서 매 단계에서 인물들의 성격발전이 작품의 주제해명과정으로 일관되게 한다.

청년과학자들의 특색있는 성격형상을 창조한 장편소설 《먼길》은 박력있는 이야기줄거리의 전진과정이 성격발전의 단계와 밀접한 련관을 이루도록 하였다.

작품에서 철개량제연구를 위하여 현지로 떠날 때 주인공 최중열은 《과학탐구의 전선에 갓 들어선 애송이병사》였다. 하지만 그는 겉썩이는 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철개량제의 연구를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불사신과 같은 성격으로 발전한다.

작품에서는 최중열의 성격발전의 단계들을 명백하게 설정하고 해당 단계의 생활들을 풍만하고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비교적 방대한 생활이지만 전반생활을 박력있게 조직하였다.

초기의 주인공은 멀고 먼 과학탐구의 길을 앞에 두고 기대와 긴장감에 사로잡혀있다. 그러던 그는 그렇게도 믿었던 양빈기사의 도주로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성격으로, 이야기도 재미나게 할줄 아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고 일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것을 꺾듯이 이

겨내며 끝까지 탐구의 길을 걸어가는 성격으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한다. 매 단계마다 주인공의 성격적면모를 새롭게 드러내며 발전해나가는 이야기줄거리는 시종일관 독자들을 매혹시킨다.

성격발전의 단계들을 명백하게 설정하는데서 특히 절정을 명확히 설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줄거리가 본질에 있어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의 필연적과정이라고 하여 그것을 평면적으로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성격발전의 단계들이 설정되었다고 하여도 성격발전의 절정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 매 단계들은 논리적으로 짚을 수 없으며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박력을 잃게 된다.

인물들의 개성의 발현은 철저히 작가가 발견한 인물의 사상정서적지향의 발현을 최절정으로 하여 생활론리에 맞게 조직되어야 한다. 성격발전의 절정은 결국 주제와 종자의 해명마당으로 된다.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기초성격과 마감성격을 명백히 구획짓고 그 발전과정을 생활론리에 맞게, 선명하게 둔구어야 한다.

장편소설 《먼길》에서 주인공 최중열의 성격발전의 절정은 그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호성골탐사의 길을 가는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바칠 높은 충정심과 의지를 가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참된 과학자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적높이를 보여주주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절정부분을 정확히 설정하고 양빈의 실패와 좌절과정, 우준호의 자기기만의 과정, 그들에 대한 주인공의 동정이나 이해, 격분의 감정들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절정장면을 위한 감정적축적을 충분히 깔아주었다.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참된 과학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극적으로 두드러지는 절정은 독자들의 비상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절정이 명확히 설정된것으로 하여 이미 깔아준 성격발전단계들이 논리적으로 짚이게 조직될수 있었으며 작품은 과학탐구의 길은 높은 과학적실력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신념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곳곳이 걸어갈수 있는 먼길이라는 심오한 주제사상을 보여주었다.

장편소설에서 박력있는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는 다음으로 주인공의 지향선을 예리하게 부각시킬수 있는 극적정황들을 특색있게 조성하는것이다.

사건은 성격해명의 생활적바탕이다. 폭넓은 생활의 흐름을 그리는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의 핵을 선명하게 부각시킬수 있는 극적정황들을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장편소설에서는 생산문제로 인한 사건적정황들을 조성할수 있지만 순수 생산실무적인 정황은 독자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킬수 없다.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날수 있는 사건적정황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자체가 아니라 인간문제, 료리적인 문제로 인한 계기를 조성하는것이다. 이것은 인물들호상간에 지향의 대립과 충돌이 심각해지는 계기, 종전의 인물호상관계에서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계기들을 조성해주는 문제이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는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주인공 진호가 제철소로 내려가는 과정을 결코 시험의 실패라는 실무적인 문제로만 그리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진호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기 위하여 《령리하게》 현장탄원을 한다

는 여론이 나돌고 그를 사랑하던 처녀와도 결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곡절을 주인공에게 걸어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운명발전에 대한 긴장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끌려들 수 있게 하였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계기를 몇 차례에 걸쳐 조성한다.

심의실장에게서 모욕받는 계기, 동무들속에서 의심받는 계기, 사랑하는 현옥이에게서 까지 의심을 받는 계기들은 그의 내면세계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제철소 현장에 내려와 친구인 태식의 투사기로 새 연료안전입시시험을 하던중 일어나는 폭발사고는 그의 심리적고충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때에도 단순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친구와의 의리문제, 사고로 하여 추궁받는 당비서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끼는 과정 등을 곡절의 심화과정으로 형상함으로써 이야기의 박력을 조성하였다.

주인공밖에도 정아나 현옥, 태식이 부닥치는 극적정황들을 심리적, 료리적위기로 심화시키는데 사건전반흐름을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전반을 관통하는 이야기줄거리는 등장인물들의 운명발전에 대한 심각한 사색과 긴장, 극적인 기대로 박력있게 전진하는것이다.

장편소설에서 박력있는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는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키면서 성격발전의 전환적계기들을 새롭게 조성하는것이다.

인간관계의 극적인 발전은 주제해명의 방도인 동시에 새로운 성격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 이야기의 바탕은 생활이며 모든 생활은 인간관계의 변화발전속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발전한다는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인간학적문제로 깊이 얽혀든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관계속에서 펼쳐지는 사건적계기들은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으며 새로운 성격의 발현 및 발전을 추동한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에서 주인공 세철의 성격발전과정은 극적인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빨찌산에서 싸우다 전사한 형의 전우인 전학민련대장과의 극적인 인간관계, 자기처럼 믿고 존경해왔지만 간첩인 장인택을 숨겨준 안휘태와의 관계, 둘도 없는 전우였던 문기수와의 관계 등은 주인공의 성격적발전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하고있다.

당시 세철을 둘러싸고있는 인간관계는 매우 극적이다. 안휘태는 세철이 사랑하는 보패의 아저씨인 동시에 보패에게 치근거리며 달라붙는 위선자 장인택과도 친한 사이이다.

보패와의 문제, 장인택이와의 문제로 하여 불안하면서도 불쾌한 상태에 있던 세철이었지만 간첩행위를 본의아니게 도와준 안휘태의 일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당적립장에서 한 당원의 양심을 보증한다. 이처럼 극적인 인간관계의 발전과정속에서 보통때에는 소심한줄로만 알았던 세철이가 누구보다 단호하고 원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성격전환의 과정은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으며 매력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장편소설창작에서 이야기줄거리의 박력을 조성하는 문제는 결국 참신하며 매혹적인 인물성격을 창조하는 문제이며 그로 하여 독자들의 비상한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명작창작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창작가들은 이야기줄거리를 박력있게 조성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창작에 구현해나감으로써 장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